

글. 이은정_ Lee, Eun-jung

CJ파워캐스트 프로듀서

새로운 공간, 멀티프로젝션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몽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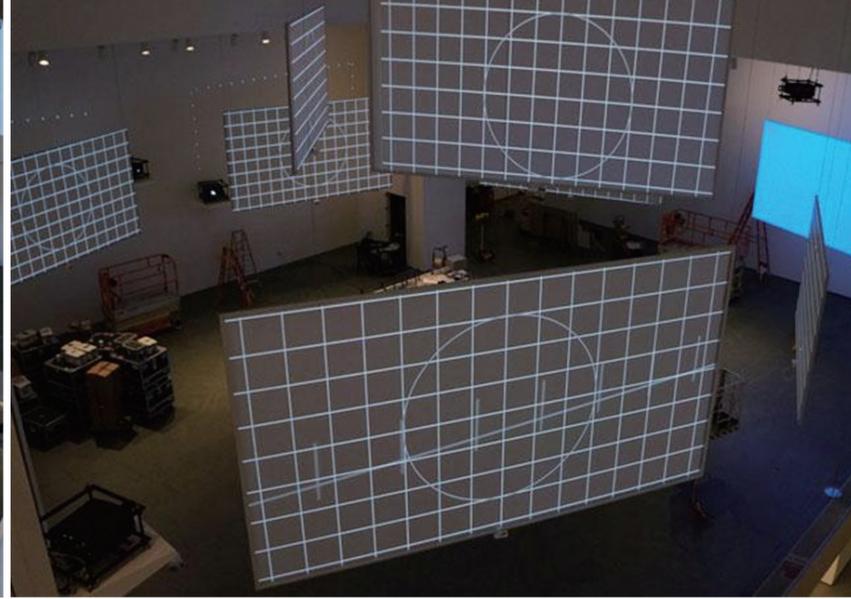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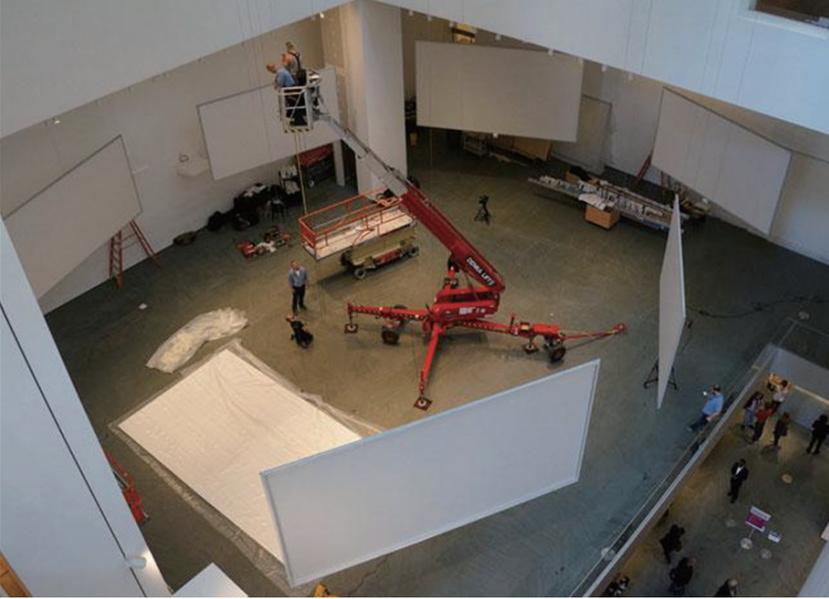
Architecture montage in Multiprojection

최근 들어 현대미술의 관객들은 갤러리, 미술관 또는 비엔날레 전시에서 다양한 스크린 기반 설치작품과 마주친다. 국내에서도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쉬린네샤트 展>, <에스퍼 유스트: 욕망의 풍경>을 비롯해 2013년대 서울시립미술관의 <VIDEO FEVER - SCREENING LIVE PERFORMANCE TALK>,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2012년 백남준 아트센터 <더그 에이트킨 -전기지구>, 2011년 스페이트 아트 씨의 <VIDEO Tale>, 2010년 아트선재 센터의 <플랫폼 2010 프로젝트 이미지> 등 최근 5년간 영상설치 작품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갤러리 영화(gallery film) 또는 전시영화(cinema d'exposition)라고 명칭 되는 스크린 기반 예술 형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갤러리 영화를 제작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미술의 한 경향으로 출발한 갤러리 영화는 미술에서의 설치미술 혹은 비디오 아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히려 영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종류의 경험을 생산해 낸다. 설치 영상 작품은 제도영화 바깥에서 기술적 미학의 가치를 사용하여 영화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와 관람의 정의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영화의 상영 처럼 더이상 한 가지 포맷으로 영상이 표현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시되는 공간이 어떤 크기와 조건들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스크린을 설치하고 다른 형태의 구현과 경험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상설치 작품들은 멀티프로젝션 작업을 통해 스크린의 위치, 크기 등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공간적 상황을 구조화 시키고 있다. 영화의 프로젝션을 떠올리게 하는 스크린 여러 개를 갤러리 룸 안으로 구성적으로 배치하면서 스크린의 공간과 화면공간, 그 안에 개입하게 되는 관객 사이의 새로운 공간적 문맥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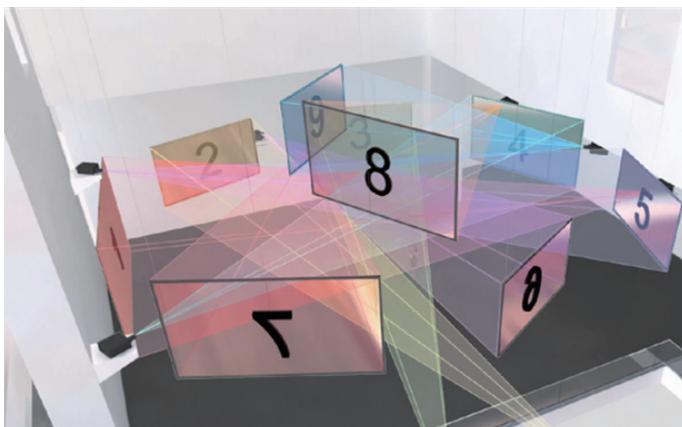


서울예대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MFA과정을 취득 하였다. SBS를 거쳐 현재 CJ powercast 프로듀서로 근무 중이며 영화뿐 아니라 영상,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Peter Weibel은 멀티채널 프로젝션을 화면 분할 기술에 의해 다수의 이미지로 분배되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벽에 이미지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미지가 해체되거나 증가되는 스크린 기반 전시형식으로 관습적인 개념의 회화, 이미징의 기술을 사회적 관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시각 문화라고 정의 내린다.¹⁾ 이제는 영화적(Cinematic)요소가 전시공간의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 되었고, 현대미술은 작품을 통해 공간 안에서 반응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품과 관객, 그리고 그 관계 속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작품에서 벗어나 대상과 더불어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창조되는 경험으로서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적 고민과 맞닿아 간다.



<Isaac Julien, 천 개의 파도 (Ten Thousand Waves)> 2010 - 3개의 이야기가 9개의 스크린으로 진행되었는데, 1930년대의 한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분할되어 상영되면서 관람객들이 다 채널 스크린을 통해 영화의 분할적 편집을 경험한다.

할 포스터는 그의 저서 「The Art-Architecture Complex」에서 시각예술과 건축의 만남을 통해 예술이 점점 건축적 양상을 드러내고, 예술작품이 공간을 형성하고 점유해 나가면서 감상하는 수용자의 태도 또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공간에 접근하는 관객의 신체적, 인지적 경험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1960년대 미니멀리스트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영상매체는 디지털 기술과 발전하면서 공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술작품은 감상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갖게 되었고 심미적 체험 또한

확장되어 새로운 공간과 관객성을 성찰하게 한다. 영화가 건축으로부터 물려받은 관객성은 영상 매체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서 활발히 일어나고 디지털 적용과 함께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Pipilotti Rist - Pour your body out> 2008 - 압도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환경으로, 전통적인 영화적 관람과 동일하지는 않은, 새로운 장치들과 플랫폼의 구성에 힘입어 새로운 장소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1) Peter Weibel, 『Narrated Theory : Multiple Projection and Multiple Narrative (past and future)』 Martin Rieser, Andrea Zapp, 『New Screen: Cinema/Art/Narrative』, British Film Institute, 2008, p.42-43